

프로야구 별들의 축제... 호랑이군단이 빛난다



KBO 올스타전 내일... KIA 김호령 등 5명 출전 이범호는 나눔팀 감독, 팬들 위한 이벤트 '다채'

KIA타이거즈 선수단 5명이 올해 별들의 축제를 빛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12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의 행사 참석 선수와 시상 내역을 최종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이번 올스타전은 나눔올스타(KIA·LG·한화·NC·키움)와 드림올스타(삼성·두산·kt·SSG·롯데)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난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나눔 올스타는 이범호 KIA 감독이, 드림 올스타는 박진만 삼성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명단은 팬 투표 70%와 선수단 투표 30%를 합산

해 양 팀 베스트 12가 선정됐고, 감독 추천 선수 13 명씩을 더해 총 50명의 올스타가 팬들 앞에 선다.

당초 이번 올스타전에서 KIA는 3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지명타자 최형우가 '베스트 12'에 올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담 올러와 최지민, 김태균은 감독 추천 선수로 합류했다.

그러나 김도영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송성문(키움)이 대체 선수로 발탁됐다. 올러 역시 팔꿈치에 불편감이 있어 윤영철이 대신 나선다. 최형우는 최근 햄스트링 부상으로 올스타 기간 치료에 전념, 김호령이 대신 출전할 예정이다.

그 결과 KIA에서는 윤영철·최지민·박찬호·김태균·김호령 등 5명이 이번 별들의 무대에 오른다.

올해 올스타전 행사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당일인 12일 오후 3시 10분부터는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외야 그라운드에서 30명의 올스타 선수들이 3개 조로 나뉘어 팬 사인회를 진행하며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팬 페스트존의 원포인트 레슨 및 다양한 팬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한밭야구장(구 한화아글스 홈구장) 내 팬 페스트존의 배팅존과 피칭존에서는 이호성(삼성), 안현민(kt), 이도윤(한화), 배재환(NC) 등 올스타 선수들이 참여해 실제 그라운드 위에서 팬들에게 직접 타격과 투구에 대해 알려줄 방침이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신한 SOL뱅크 썸메이스트'가 펼쳐진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KIA 윤영철·최지민·LG 김영우·박명근·한화 김서현·문현빈·NC 주원일·김형준·키움 이주형·주승우가, 드림

올스타에서는 삼성 배찬승·이호성·두산 김택연·오명진·kt 권동진·배정대·SSG 이로운·조형우·롯데 김원중·전민재가 팬·마스코트와 한 팀을 이뤄 장애틀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다. 대회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우승팀에게는 상금 350만원이 수여된다.

오후 6시에 열리는 올스타전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MVP. '미스터 올스타'에게는 KIA EV4 차량과 트로피 그리고 메디힐 코스메틱 상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올스타전 역사상 가장 많은 미스터 올스타를 배출한 팀은 롯데로 15번이나 최고의 별을 하늘에 띄웠다.

KIA는 해태 시절을 포함해 7번으로 그 뒤를 잇고, kt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소속 선수가 미스터 올스타로 뽑힌 적이 한 번도 없다. 투수가 미스터 올스타가 된 사례는 1985년 김시진(당시 삼성), 1994년 정명원(당시 태평양) 두 번이 전부

다. 올스타전 우승팀에게는 상금 3000만원이 주어진다. 승리 감독상과 우수 수비상, 우수 투수상, 우수 타자상, 베스트 퍼포먼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메디힐 코스메틱 상품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한편 앞선 1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퓨처스 올스타 경기와 컴투스 프로야구 홈런더비가 개최된다. 홈런더비에는 안현민(kt), 르윈 디아즈(삼성), 최정(SSG), 문현빈(한화), 송성문(키움), 김형준(NC), 박동원(LG), 이주형(키움)이 출전해 파워 대결을 벌인다.

경기장을 찾는 팬들을 위해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외야 광장과 지난 시즌까지 한화 홈 경기장으로 쓰인 한밭야구장 그라운드엔 팬 페스트존을 마련했다. 팬 페스트존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경품 선물, 기념품 판매처 등이 팬들을 기다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주도-호남권 장애인체육회, 완도서 교류전 개최

11일까지 120명 참가 소통 다져
"상생과 화합... 협력 발판 기대"

제주-호남권 장애인체육회 간의 상생발전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2025 제주-호남권 장애인체육회 교류전'이 11일까지 전남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이번 교류전에는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120명이 참여한다.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이 행사는 각 지역 장애인체육회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첫날인 10일 좌식배구와 명랑운동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화합을 다졌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야외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제주-호남권 장애인체육회 간의 상생발전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2025 제주-호남권 장애인체육회 교류전'이 11일까지 전남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이어지는 둘째 날 11일에는 완도군의 협조로 '완도방문의 해'를 맞아 완도양치유센터 체험을 비롯해, 완도수목원과 완도타워 등 지역 명소를 둘러보며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류전은 단순한 체육 교류를 넘어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 간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확대 등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이 마련돼 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3개 시·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교류전을 통해 호남-제주 장애인체육회 간 상호 신뢰와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협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여자축구, 중국과 동아시아컵 2-2 무승부

지소연 극적 동점골

지소연(시애틀 레인)의 '극장 동점 골'을 앞세운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첫 경기에서 중국과 극적으로 비겼다.

한국은 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 2025 동아시아컵 여자부 1차전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2005년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

는 한국은 13일 '강호' 일본과 2차전에서 첫 승리에 재도전한다.

전유경(롯데)과 지소연을 전방에 내세우고 좌우 날개에 문은주(KSP)와 강재림(수원FC)를 배치해 공격적으로 중국을 상대한 한국은 전반 7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으로 쇄도한 강재림의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은 전반 15분 상대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중국의 야오웨이야가 페널티 이크 앞에서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한국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이후 쉽지 않은 중국의 수비진을 두드린 한국은 전반 추가시간 1분 장승기의 귀중함 동점골이 터져 나왔다.

전반을 1-1로 마무리한 한국은 후반 또다시 상대에게 추가골을 먼저 내줬다.

후반 22분 사오쯔친이 헤더로 한국 골망을 갈랐다.

패색이 짙어지던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막판 '지메시' 지소연의 발끝에서 극적인 동점 골이 터져 나왔다.

중국 진영 중원에서 볼을 이어받은 지소연은 벼락같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으면서 한국을 패배에서 구해내고 귀중한 무승부를 끌어냈다.

연합뉴스

한국 수영, 세계선수권 '금빛 역영' 도전

김우민·황선우, 세계선수권 2회 연속 금메달 목표

11일 개막해 다음 달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25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대형 국제대회가 없는 해에 열리는 이벤트다.

지난해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대회는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둔 터라 일부 정상급 선수들이 불참했지만,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수영 스타들이 대거 참가한다.

한국 수영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전초전 격인 이번 대회에서 2회 연속 '금빛 역영'을 기대한다.

한국 수영의 세계선수권대회 최고 성적은 지난 도하 대회에서 남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다.

이번 싱가포르 대회에 우리 대표팀은 지도자 12명과 선수 35명을 파견한다.

먼저 자유형 400m에는 한국 중장거리 수영 강관 김우민이 출전한다.

김우민의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가로막을 가장 큰 경쟁자는 파리 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루카스 메르텐스(독일)다.

파리 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 결승 진출 실패라는 아픔을 맛봤던 황선우는 좋지 않았던 흐름을 끊는 게 필요하다.

황선우는 지난 3월 대표선발전 자유형 200m를 1위로 통과하긴 했으나 1분45초40으로 자신의 최고 기록(2022 도하 아시안게임 1분44초40)보다 1초가 뒤처졌다.

황선우가 주춤 사이, 라이벌이었던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는 지난달 유럽 선수권대회에서 1분43초64로 우승해 올 시즌 자유형 200m 1위 기록을 세웠다.

2022 부다페스트 대회 자유형 200m 은메달, 2023 후쿠오카 대회 이종목 동메달에 이어 지난해 도하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은·동을 수집



김우민

황선우

했던 황선우는 "4회 연속 포디움(상상대)에 서는 게 목표"라고 당차게 밝혔다.

한국 경영 대표팀이 가장 힘쓰는 종목은 남자 경영 800m다.

황선우에 김우민, 이호준(제주시청) 3명의 영자는 지난해와 같고, 새로온 4번 영자로 2006년생 막내 김영범(강원도청)이 새롭게 합류한다.

절영이 주 종목인 김영범은 올해 3월 대표선발전 자유형 100m에서 황선우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지난해 도하 대회에서 동메달 2개로 최고 성과를 냈던 다이빙은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을 노린다.

간판 김수지가 무릎 수술 이후 완전히 재활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출전을 강행한다. 이번에는 1m 스프링보드 경기에만 나선다.

이재경은 정다연(광주시체육회)과 새롭게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로 호흡을 맞춘다.

'수영 마라톤' 오픈워터 스위밍에서는 오세범(국군체육부대)과 박재훈(서귀포시청), 김수아(서울 둔촌고), 황지연(경남체고) 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27m 높이에서 점프하는 하이다이빙에서는 최병화(인천광역시수영연맹)가 무대에 선다.

연합뉴스